

정청래 “광주 시 육성·전남 의대 설립 당 차원 적극 추진”

민주 당대표 출마 DJ센터서 북콘서트...尹 탄핵 소추 과정 담은 책 발간 “민주주의 성지 광주·전남·북에 큰 빛...숙원 사업들 정부에 적극 건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6일 “호남권 메가시티, AI·미래 모빌리티·금융산업 육성,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지키는 나라 북콘서트’를 위해 광주를 찾은 정 의원은 광주일보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광주·전남 지역을 맡겠다고 자원했다”며 “대선 기간 광주·전남 지역 80곳, 이동거리 6482km, 도보 이동거리 110.4km였다. 잠깐 유세차에 오르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을 발로 뛰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 구석구석을 돌면서 유세현장을 찍은 라이브, 쇼츠 등 유튜브가 1억1000만 뷰를 넘었다. 현장의 맘과 대선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이 만든 유례없는 기록이었다”며 지역민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정청래 의원

특히 정 의원은 “민주당은 광주·전남전북에 진짜 큰 빛을 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제가 장날 가서 노상에서 나무를 파는 어머니들께 정말 감동받았다”면서 “윤석열 내란사태를 겪고 탄핵을 시킬 수 있었던 것 역시 호남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 논리로 추진되지 못했던 숙원 사업들을 당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면서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확대하고, 국책사업을 우선 배정하는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호남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호남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지역 숙원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강력한 당대표, 개혁은 정청래다. 싸

움은 저 정청래가 할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하시다”며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면서 “추석 전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으로 귀향길에 소식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 6개월 안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장성군에서 여성위원회 워크숍을 연 뒤 황룡면으로 이동해 핵심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 뒤 광주에서 ‘국민이 지키는 나라 북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번 북콘서트는 정 의원이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에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단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한 과정을 담은 책 출간을 기념해 열렸다.

정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도 “저는 항상 선당후사, 백의중군해왔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의리를 지켰다”면서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 당원이 사랑하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지역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지키는 나라’ 북콘서트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국회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배(광주 광산), 전진숙(북구), 박근택(광산갑) 의원이 참석했고, 전남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주철현(여수갑),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이 함께했다. 이병훈 전 의원도 자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7개 부처 인사청문회 14일 시작

여 “최대한 빠른 통과”...야 “송곳 검증” 전문 고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여야 간 전선이 또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인준을 놓고 한차례 충돌했던 여야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창과 방패’의 양보 없는 결전을 예고하면서 청문 정국 2라운드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김 총리는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준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내각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정책 전문성 등에서 벌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버리고 있다.

소관 상임위별로 확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은 6일 기준으로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통과’를 이번 청문 정국의 목표로 잡았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신속하고 무탈하게 완성해야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고 개혁·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 중에서도 ‘결정타’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며 후

보자들의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은 풍문이나 아니면 평가 가치에 달린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 사안”이라며 “그보다는 장관으로서의 실무 능력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대 내각 구성에 현역 의원 후보자가 다수 포진했다는 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막 없는 청문회의 기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1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안규백(국방), 윤호중(행정안전), 정동영(통일), 정성호(법무), 김성환(환경), 전재수(해양수산), 강선우(여성가족) 등 후보자 7명이 민주당 현직 의원이다.

현직 의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이미 재산·경력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만큼 무리 없이 인선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인선을 여당·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한 ‘보은 인사’로 규정하며 철저한 검증을 버리고 있다.

그간 김 총리 인준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에서 거대 여당의 수적 우위에 반반이 밀린 국민의힘은 이번엔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여론 반전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연합뉴스

박찬대 “개혁·민생·통합 이끌 민주 당대표 책임자는 나”

나주·동부권서 ‘토크콘서트’ 김영록 지사, 전남도 현안 건의에 박 “에너지 국가산단 등 해결할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의원이 지난 6일 나주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광주·호남 정신이 대한민국을 구했다. 특별한 헌신에는 특별한 보상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12·3 내란’ 정국에서 싸워 이긴 ‘검증된 전사’임을 강조하며, 개혁과 민생, 통합을 이끌 당대표 책임자임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5월 13일 원내대표가 돼서 1년 1개월 17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국민과 함께 내란을 이겨냈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박 의원은 ‘유능한 개혁,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야당 대표들은 싸움을 잘해야 하지만, 집권여당 대표들은 싸움을 넘어 유능한 민생과 성장하는 경제,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사 출신으로서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저는 반박 박씨다. 우리 호랑공묘소가 나주 금남에 있다”며 지역 인연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대해 “대통령의 마음은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가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당을 뒷받침할 것인가, 그 인물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국회의원이 6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박지원 국회의원 등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우리 주권자인 당원들이 뽑아줄 것이라 믿는다”며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끝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의 그 말씀을 빨리 실천하도록 예산과 법률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지원, 신정훈, 서삼석, 박성준, 노종면, 박선민 의원 등 당내 중진과 동료 의원이 대거 참석해 박 의원에게 힘을 보탤었다.

박 의원은 6일 당대표 경선 일정 중 나주를 방문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최근 국가산단단지 승인된 나주 에너지 산단을 방문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나주 에너지 국가산

단의 조기 조성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 절차 없이 나주로 정책지정해 줄 것, 광양·순천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을 요청했다.

박찬대 의원은 “에너지산업 육성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전남도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계획에 서명했고, 이같은 전남도의 건의 내용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남 동부권으로 이동해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방 박대진(541024-1XXXXXX)
- 최후주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평2길 21
- 피상속인 방 박대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 가정법원 2025년520호로 신청하여 2025년 6월 3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와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7월 7일
- 상속인 : 임순례(580328-2XXXXXX)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평2길 21
- 신고기간 : 2025. 7. 7. ~ 2025. 9. 16.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임순례의 주소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5년 6월 1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7월 7일

파브코이엔지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1206호(오봉동)
창산인 최동석

뭣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고급 전원주택 매매 (평당 위치)

전남 담양 수북 쪽재골길

대지 704py, 주택 60p
카페부속건물 20p, 태양 6킬로
최고급 독일 건축재료, 경치 최고.

금 매
매 16억 9천, 은행 11억,
인수가 5억 9천

010-3646-8700

73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들과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州日報

· 지역안내

북 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222-8171
	· 양 신 571-7658	· 오 치 266-7011
	· 양 동 433-1503	· 우 신 433-1503
동 구	· 남 경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북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신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경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진구	· 문 은 952-1687	· 월 곡 950-1920
	· 협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